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 연구*

- 퍼스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with Interior space and Furniture

- Focused on Peirce's Theory -

Author 백정민 Baek, Jung-Min / 정회원,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설계전공 석사과정
허범팔 Hur, Bum-Pall / 명예이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Interior design has diverse functions and roles according to recent changes in life and cultural style. As the meaning of space varies, the furniture as another element of the space should also be planned and included in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o accomplish its functional role on the finished space and not only be plac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ior space and furniture should be studied and understood at the same realm because they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 final destination of design, which is very challenging to accommodate people, the designer needs to approach to the interior space and furniture in a cognitive view. The study of Semiotics views in a knowledgeable and epistemological way every element as a sign and by the relationship of their characters it make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signs. Charles Sanders Peirce, a leader of Semiotics in USA, classified the structure of Sign into Representamen, Object and Interpretant to complete the theory which could systematically describe physical characteristic and function of the Sign and its significance in practical use. Peirce stated that all nine types of Sign would be generated if each structure of Sign in combined with three categories of Sign such as Firstness, Secondness, and Thirdness. In this study, based on Peirce's nine types of Sig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furniture in interior design was investigated with examples in Living Space, Office Space, and Commercial Space, respectively. In the category of Representamen,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Qualisign, Sinsign, and Legisign, it is a feature of Living Space to be expressed in harmonized and stabilized ways. In Office Space vertical/horizontal elements and open expression are differently showed depending on fields. And splendid and interesting expressions are showed in Commercial Space. In the category of Object,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Icon, Index, and Symbol, each function of Sign has distinctly been showed as Symbol in Living Space, Index in Office Space, and Icon in Commercial Space, respectively. In the category of Interpretant,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Rheme, Dicisign, and Argument, it was found that space image of Living Space is transferred to human being, Office Space regulates human being, and Commercial Space binds human being with the space. In conclusion the function of the interior space and the furniture could be explained in another way with re-interpretation of interrelationship among interior space elements in the concept of Semiotics. It is expected that interpretation with Semiotics in interior design will grow to new theory of design.

Keywords 실내 공간, 가구, 상호관계성, 퍼스, 기호학
Interior Space, Furniture, Interrelation, Peirce, Semiotic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최근 실내디자인은 생활환경과 양식의 변화에 따라 정

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구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공간은 외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어떤 목적에 맞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인간에게 다양한 체험과 감정을 전달해 주는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기본 구성요소인 기둥, 바닥, 벽, 천장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411-J05001)

또한 본래의 구조적인 역할과 더불어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서 독특한 실내 공간 형성에 복합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오늘날 가구는 완성된 공간에 기능적 역할을 하기 위해 채워 넣기 식으로 배치하는 요소가 아닌 미완성된 공간을 구성하는 창조적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즉, 실내 공간과 가구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이자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한 영역에서 그 관계가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 관계적 특성은 곧 그 공간을 구성하고 차지하는 또 다른 요소, 인간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의 공간이든 그 공간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디자인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순응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 디자이너의 조형적 감각과 직관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인지적 관점에서 실내 공간과 가구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호학은 논리적인 인식론적 방법으로, 모든 요소를 기호로 보고 기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다른 기호들과의 기호작용을 분석하여 기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을 미국의 기호학자인 퍼스의 삼원론적 기호분석에 적용한 디자인 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공간의 사용자인 인간에게 실내 공간과 가구, 두 기호의 기호작용이 어떻게 전달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인지적이고 관념론적인 성격을 갖는 미국의 기호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 이론을 바탕으로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을 연구하려는 것으로,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기호학의 개념과 기호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본 연구의 관점이 되는 퍼스의 기호학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실내 공간과 가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최근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적인 표현 특징을 알아본다.

셋째, 퍼스의 기호 체계에서 9가지로 유형화된 기호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적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

마지막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한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 연구의 결과를 서술하고, 실내디자인에서의 기호학적 해석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마련한다.

2. 기호학의 이론적 고찰

2.1. 기호학의 개념

(1) 기호학의 정의

기호학자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호로 간주한다. 고대에는 기호를 열어 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빠르게 뛰고 난 후 숨이 가빠져오는, 일종의 '증상'으로 정의했지만, 이후에 기호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하면서부터 기호의 정의는 점차 포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소쉬르가 기호학을 정의하면서 "사회적 삶의 한복판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했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호에 대한 관심은 결코 사변적인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보통 인간들의 삶에 배어있는 다양한 문화 현상들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¹⁾ 이렇듯 기호학의 뿌리는 언어학이지만, 현대의 기호학은 기호를 언어 현상의 요소로만 제한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다양한 영역으로 그 의미를 확장함에 따라 기호학도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결국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호의 물리적 성질과 목적에서부터 내면의 구조와 배경, 다른 기호와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그로 인한 새로운 창조 활동의 잠재적인 가능성까지 연구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기호학은 모든 문화적 과정들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연구하며, 문화적 과정들의 심층 속에 있는 체계와 법칙들의 존재를 보여 주려고 한다.²⁾

(2) 기호학의 흐름

고대부터 시작된 선구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현대 기호학은 유럽 언어학에 전통을 둔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철학적 전통 기반의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어학자였던 소쉬르는 언어의 역사와 그 변화 과정을 살폈던 당시의 지배적인 언어 연구를 뒤로하고, 언어를 자율적인 체계로 보고 언어의 보편적 속성을 연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소쉬르는 언어를 순전히 도구적으로 보는 언어 연구로부터 그 자체의 권리 갖고 있는 체계적인 내적 연구대상으로 관점을 옮겨 놓았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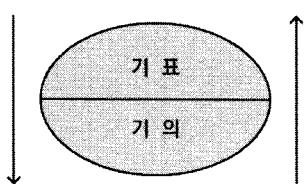
이러한 언어학의 관점에서부터 기호학을 발전시켜 나간 소쉬르는 기호란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인간존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사소통수단의 도구라고 하였다. 기호학은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라는 이중구조로 구조화되어 있고 이

1) 김성도, 기호, 리듬, 우주, 인간사랑, 2007, p.233

2) 김치수,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3

3) Ibid., p.44

두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표’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실체적 요소로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기의’는 기호가 대변하는 정신적 개념으로 의미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즉 기호는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의 결합체이며 자의성을 지닌 것으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고안물이라고 하였다.⁴⁾ 또한 이러한 기호 역시 이미 사회로부터 정해진 관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소쉬르는 기호학을 사회 문화적, 사회 심리학과 같은 포괄적인 기호학의 한 영역으로 이해한다.



<그림 1> 소쉬르의 기호 구조

이렇듯 소쉬르가 기호학을 언어 이론으로 제한한 반면, 퍼스는 기호의 범위를 범우주적으로 넓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각으로 기호학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미국 기호학의 선구자로 불리게 된다. 현상학⁵⁾에 뿐만 아니라 퍼스의 기호학은 우리에게 단지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까지 포함한다. 즉, 기호 없는 사고는 불가능하며, 모든 사고는 기호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퍼스의 기호학은 인식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퍼스는 논리학을 수학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파악했다. 퍼스에게서 논리학은 발견의 논리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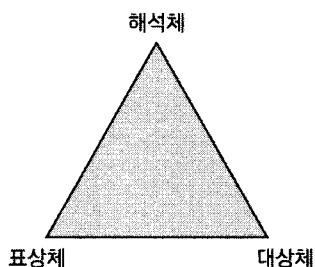
2.2. 퍼스의 삼원론적 구조

기호를 이원적 구조라고 주장한 소쉬르에 반해, 퍼스는 기호는 삼원적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삼원적 기호 구조에서 출발점이 되는 표상체는 기호 그 자체이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정해진 형태나 방식이 보여주는 윤곽이 될 수도 있다. 기호가 생성될 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표상체는 어떠한 것과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그 자체로서 그 무엇을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는 네 발이 있고, 털이 난 동물이다. 꼬리를 흔들며 짖기도 한다.

두 번째로, 대상체는 표상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 표상체가 내적으로 품

고 있는 의미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또한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음으로 발생하는 그 무엇이다. ‘개’는 포유류 중 가장 오래된 가축으로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200여 가지의 품종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애완동물로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다.

세 번째로, 해석체는 표상체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로, 기호 작용의 마지막 단계이며 퍼스가 기호의 구조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해석체는 ‘우리가 한 기호를 접하게 될 때 우리 관념 속에서 발생하는 기호’로 이해할 수 있다.⁷⁾ 따라서 해석체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존재한다. A와 B가 동료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그 집에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A는 귀여운 강아지를 쓰다듬었지만, 어릴 적 큰 개에게 물렸던 B는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B 앞에 있는 것은 작은 강아지지만, B의 관념 속의 ‘개’는 크기에 상관없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림 2> 퍼스의 기호 구조

또한 퍼스는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이란 범주에 관여하는 관점에 따라서 기호를 삼분한다. 이 세 종류의 기호삼분법은 먼저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호자체의 측면에 따른 것이고, 다음은 기호 대상과 이원적인 관계에 있는 기호 측면이고, 마지막은 어떤 해석소를 위한 대상체의 표상의 삼원적 관계로서의 기호 측면을 말한다.⁸⁾

<표 1> 퍼스의 9가지 기호 유형

	일차성 (성질)	이차성 (있는 그대로 사실)	삼차성 (법칙)
표상체 (일차성)	품질기호 (품질 그 자체)	개별기호 (개별적 실현)	법칙기호 (일반적 법칙)
대상체 (이차성)	도상 (대상의 성질을 공유)	지표 (대상과 인과적 관계)	상징 (대상과 자의적 관계)
해석체 (삼차성)	해석기호 (해석의 가능성)	발화기호 (현실적 존재)	논항기호 (논증의 기호)

퍼스는 1867년, 그의 논문 <새로운 범주 목록에 관하여(On a New List of Categories)>에서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의 삼원적 구조으로 이루어진 기호는 각각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의 범주와 관계를 맺게 되어 총 9가지의 기호의 유형이 탄생한다고 발표했다.⁹⁾ 이로써 퍼스의

4) 송진원, 사회적 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2010, p.34

5) 현상학은 어떤 실체의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현상의 성격과 그 존재와 의미를 밝히는 것이 현상학의 목적이다. 퍼스는 특히 칸트의 현상학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칸트는 경험적 현상을 중시하였다.

6) 찰스 샌더스 퍼스, 퍼스의 기호 사상, 김성도 역, 민음사, 2006, p.14

7) 폴 코블리, 기호학, 조성태·변진경 역, 김영사, 2002, p.27

8) 기호학연대, 기호학으로 세상읽기, 소명출판, 2002, p.311

기호학은 더 풍부하고 역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우리는 퍼스의 기호학을 통해 기호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 자체로서의 기호, 즉 표상체에서 기호는 품질기호, 개별기호, 법칙기호로 유형화된다. 품질기호는 기호의 성질로 어떤 기호의 가능성만을 갖고 있어 실제적인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 품질기호가 구체적인 기호작용을 거친 결과 물리적인 개별기호가 되는 것이다. 법칙기호는 사람이 계약적으로 정한 일반적 법칙이 기호로 나타난 것이다.

대상체에서 기호는 도상, 지표, 상징으로 유형화된다. 도상은 유사성으로 대상체를 재현하고, 지표는 대상체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을 지시하는 성격을 가진다. 상징은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기호로 자의적 성격을 가진다.

해석체에서 기호는 해석기호, 발화기호, 논항기호로 유형화된다. 해석기호는 의미론적으로 결정적이지 않고 해석의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발화기호는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해석소의 관계에서는 아직 열린 기호를 말한다. 이 기호는 논리적으로 참 혹은 거짓일 수 있다. 논항기호는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¹⁰⁾

3.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

3.1. 실내 공간의 일반적 이해

실내 공간은 도면 위에서 점, 선, 면으로 구성하여 2차원의 형상을 작도하여 전개되나 공간은 3차원 입체로서 볼륨(volume)과 매스를 형성, 그 내부에서 편리하고쾌적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¹¹⁾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기 때문에 삶의 패턴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해왔다.

초기 문명인들은 자연의 위험요소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지에 구조물을 세움으로써 공간을 한정했다. 그 이후로 생활환경과 문명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욕구와 여러 가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이전의 실내 공간은 바닥, 벽, 천장 등의 기본적인 공간 구성 요소가 제공하는 면에 당시 유행하던 문화적인 요소를 장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첨단 기술과 다양한 재료의 발달로 현대의 실내 공간은 자유로운 평면 계획이 가

9) 이후에 퍼스는 기호의 유형을 66가지로 확대하고, 그의 기호의 정밀화 과정은 계속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호의 유형을 9가지로 제한한다.

10) Ibid., pp.314-315요약

11) 오인숙, 室內디자인 方法論, 기문당, 2001, p.19

능해지면서, 공간은 인간의 표현 수단인 동시에 삶 자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가구의 의미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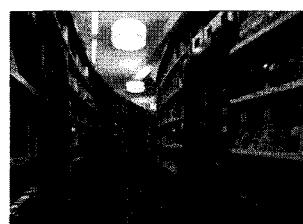
실내 공간의 주된 목적은 인간 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실용성과 미적 조형을 동시에 충족시켜 인간의 삶을 보다 능률적이고쾌적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실내 공간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구'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구는 항상 인간의 피부와 접촉하고, 그 형태나 색상, 배치에 따라 인간의 행동과 동선을 유도하고 제한하기도 하며, 심리적인 부분 또는 인간관계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시대의 문화와 양식이 벽, 바닥, 천장과 같은 공간의 구조 요소에 표현되었지만, 근대에 와서는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장식적 요소는 배제되고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됨에 따라 공간에서 가구가 가지는 역할과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즉, 실내 공간에 어떠한 가구가 놓이느냐에 따라 공간의 기능과 분위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구는 실내 공간에 융화되는 디자인으로 공간에 기능적 효과를 더해주고, 공간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가구·공간·사용자 상호간의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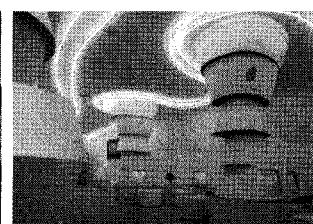
3.3.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적 표현

공간은 그 목적에 맞게 바닥, 벽, 천장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인간에게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구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가구는 공간의 구성요소가 되어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창조하기도 하고, 공간과 형태적으로 일체화하여 공간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구는 점점 진화한다고 할 수 있다.

(1) 기능의 확장



<그림 3> Paagman Book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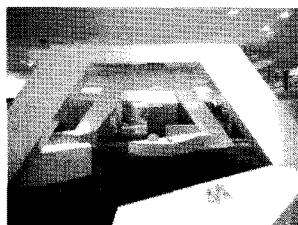


<그림 4> Flatflat

공간 구성요소에 가구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간의 구조적 기능과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가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Paagman

Book Store(Netherlands, CUBE Architects)의 가구는 디스플레이의 기능과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벽의 기능을 가진다. 특히 진열대 중간에 빈 공간을 마련하여 보행자와 접촉하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좁은 공간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림 4>에서 Flatflat(Japan, SAKO Architects)의 기둥에 화면을 내장시켜 경험이 가능한 공간을 연출했다. 기둥의 곡선은 신체의 치수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가구의 기능을 대신한다.

(2) 형태의 일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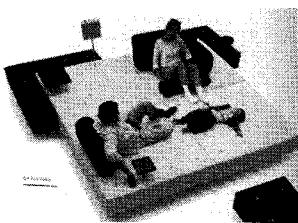
<그림 5> Strange Fr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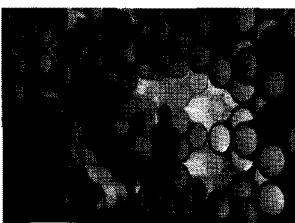
<그림 6> Hotel Q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의 형태가 통합되는 것으로,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공간의 조형적 측면을 주목하게 하여 공간 수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림 5>의 Strange Fruit(Germany, Pierre Jorge Gonzalez)에서 디스플레이 가구와 기둥이 천장에서 바닥으로 서로 연결되어 터널 효과를 냄으로써, 공간 수용자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그림 6>에서 Hotel Q(Germany, Graft)의 로비는 천장과 바닥을 연결하는 붉은 패널이 입체적으로 변형되어 선반과 의자로 사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유동적이고 연속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3) 구조의 변형



<그림 7> Q4 Plugged



<그림 8> Cloud

가구가 공간의 구조를 변형하는 것으로, 가구의 배치나 사용 유무에 따라 공간의 형태와 그 의미가 변화한다. <그림 7>의 Q4 Plugged(Netherlands, Philips Design)는 조명, 가전제품이 등이 결합된 다기능 소파로 4개의 정사각형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이 가구는 공간 안의 또 다른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기존의 공간 구조를 변형한다. <그림 8>의 Cloud (France, Ronan & Bouroullec)는 모듈화 된 수납 가구로

공간에 놓이는 위치와 그 양에 따라 공간에 배치된 하나의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공간을 분리하는 벽이 되기도 하여 공간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형한다.

4.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기호 이론이 다른 이론에 비해 갖는 장점은 각 형태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퍼스의 기호 이론은 기호를 세 범주에 맞추어 각각 3개의 기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기호의 물리적 특성과 기능,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의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내는데 적합하다.¹²⁾ 따라서 본 연구는 실내 디자인에서 공간과 가구의 상호성에 관여하고 있는 기호 체계를 <표 1>에 나타난 기호의 9가지 유형과 특성에 의거하여 작품 사례를 통해 기호작용의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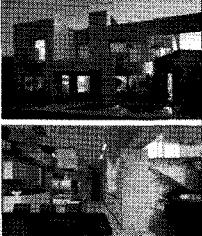
퍼스의 이론에 따라 표상체의 영역(품질기호, 개별기호, 법칙기호)에서 사례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서로 관계 맺지 않은 실내 공간과 가구, 각 기호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하여, 대상체의 영역(도상, 지표, 상징)에서는 실내 공간과 가구, 두 기호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기호 작용을, 그리고 해석체의 영역(해석기호, 발화기호, 논항기호)에서는 공간 수용자, 인간을 해석의 주체로 하여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성에 대한 기호작용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의 대상은 2000년대 후반에 발표된 실내 공간으로 하되,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기호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주거 공간, 사무 공간, 상업 공간을 대표하는 세 공간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9가지 기호 유형의 현상을 확인해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의 종류와 용도보다 실내 공간과 가구, 각 기호들이 공존하는 원리와 표현 방법이 뚜렷한 공간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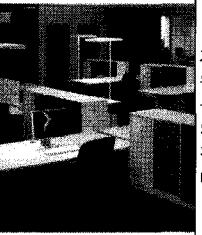
주거 공간의 사례로 Domb Architects의 DG House (Ramat-Hasharon, Israel, 2008)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또한 사무 공간의 사례로는 Shubin & Donaldson Architects의 Saatchi & Saatchi(LA, USA, 2008)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상업 공간의 사례로 SAKO Architects의 Romanticism 2(Hangzhou, China, 2007)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12) 신선주, 플래그쉽 스토어의 기호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논, 2008,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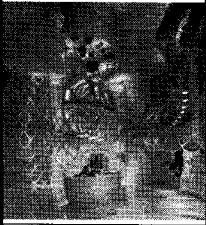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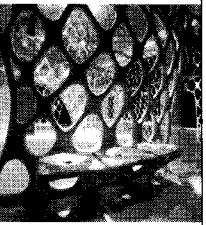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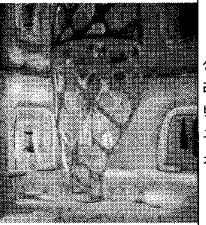
<표 2>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주거 공간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
	품질기호	개별기호	법칙기호
표상체	 <p>모던하다. 아늑하다. 편안하다. 조화롭다.</p>	 <p>공간 구성요소는 두껍고 단순한 큰 면을 강조하고, 단순한 형태와 자극이 없는 색의 가구를 배치하여 개방적이면서 편안한 공간을 연출했다.</p>	 <p>공간 구성요소는 각 실의 사용자와 용도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기능을 하며, 휴식을 위해 축각적으로 만족할 만한 재료가 사용된 편안한 가구를 주로 사용한다.</p>
대상체	도상	지표	상징
	공간의 외부와 내부 공간 구성요소에서 보이는 '흰색 선' 형태가 내부 조명과 가구의 형태와 유사하다.	거주자에게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주변 환경, 벽, 천장, 바닥 등의 공간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한다.	주거 공간에서는 영역을 한정하는 기본적인 기능의 공간의 구성요소에 비하여, 각 실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가구가 그 자체로 자의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해석체	해석기호	발화기호	논항기호
	공간의 구성요소와 가구가 전달하는 시각적·촉각적으로 아늑한 친근감이 공간 수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신뢰를 줌으로써 이후 공간에 대한 해석의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 공간의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의 기호작용이 공간 수용자에게 전도되어 공간 수용자는 주거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한다.	주거 공간에서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의 기호작용의 주체는 거주자이므로, 주거 공간은 공간 수용자를 표현하는 수단의 일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주거 공간의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는 기본적인 물리적 기능에 충실히 수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갖춤으로써 편안하면서 안정적인 개별적 표현특성을 가진다. 또한 주거 공간에서 두 기호는 무엇보다 공간의 각 실 용도에 따라 기능이 자의적 성격이 강하여 '상징'적 표현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으며, 두 기호의 상호작용 결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 '조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공간은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공간 수용자, 인간은 두 기호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공간 이미지에 전도되어 공간을 인식한다. 즉, 주거 공간의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의 상호작용은 인간을 공간에 흡수시킴으로써 인간에 공간에 안주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사무 공간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
	품질기호	개별기호	법칙기호
표상체	 <p>모던하다. 세련되다. 고급스럽다. 단정하다. 차분하다.</p>	 <p>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작업 공간의 가구는 대부분 개별적이며 수직·수평적이고, 휴식 공간에서 가구는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편이다.</p>	 <p>개인의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파티션, 작업의 효율을 위한 수납·정리가구와 작업 중 휴식을 위한 편안한 가구가 주를 이룬다.</p>
대상체	도상	지표	상징
	채도가 낮은 자연의 색 또는 나무 소재를 바닥, 벽과 같은 공간 구성요소에 사용하고, 그와 같거나 유사한 색이 가구에 쓰인다. 따라서 공간 전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작업 공간에서 공간 수용자가 능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의 동선을 최대한 짧게 계획한다. 따라서 공간 구성요소인 벽의 역할은 줄이는 대신 벽의 기능을 겸비한 가구를 사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공간 수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휴식 공간이 존재한다. 계단은 공간 수용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수직적 이동의 수단인 공간 구성요소가 될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구가 되기도 하는 자의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해석체	해석기호	발화기호	논항기호
	유사한 색이지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 않으면서 안정적인 공간을 연출하여, 공간 수용자에게 폐쇄적인 사무 환경을 제공한다.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는 작업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충분한 휴식이 기능하도록 하여 공간 수용자가 이 공간에서 경제 활동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개방적이면서 규율적인 공간 분위기는 곧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며, 두 기호의 기호작용을 통해 공간 수용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곧 공간 수용자가 기업에 결속되어 기업에 유익을 주는 창조활동을 한다.
분석결과	사무 공간, Saatchi & Saatchi LA는 작업과 휴식, 서로 다른 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두 영역에서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의 개별적 표현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작업 영역에는 능률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휴식 영역에는 자유분방함을 더하되 차분함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연출로 그 정도를 제한한다. 이와 같이 두 기호의 작용을 통하여 공간 수용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계획된 결과를 성취하는 기호의 '지표'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공간 수용자의 행동에 직접 개입하는 두 기호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은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 공간 수용자는 공간을 인식한다.		

<표 4>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상업 공간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
	품질기호	개별기호	범주기호
표상체	 <p>부드럽다. 연속적이다. 유기적이다. 하얗다. 깨끗하다.</p>	 <p>그물망이 실내 공간 전체를 뒤덮고 있다. 공간의 구성요소에서 2차원적인 면으로 표현되는 반면, 가구에서는 3차원적으로 표현되고 있다.</p>	 <p>상품 진열을 위한 디스플레이 가구가 주를 이룬다. 벽, 기둥과 같은 공간의 구성요소 또한 그 기능에 참여한다.</p>
대상체	도상	지표	상징
	공간의 요소와 가구에 흰색과 유기적인 그물망 형태가 공통적으로 쓰임으로써, 두 기호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 결과, 두 기호는 연속된 유기체의 형상으로 나타나 공간에 통일성을 준다.	유기적인 그물망의 벽면은 상품이 진열된 디스플레이 가구로 고객의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 형태와 크기가 결정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구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두 기호의 인과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는 본래의 물리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공간의 조형성을 보조하는 자의적인 오브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물망은 건물 입구부터 내부 구석구석까지 때로는 벽, 때로는 가구로 그 모습을 바꿔가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석체	해석기호	발화기호	논형기호
	공간 전체에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하고, 그물망 이외의 다른 디자인 요소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간 수용자에게 공간의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하여, 공간 수용자가 공간에 대한 연상과 그로인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뚜렷한 특징을 지닌 공간이 공간 수용자를 공간에 강하게 결속시킴으로써 수용자는 공간의 의미형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공간과 상품의 일체화를 통해 제품을 연상시켜 구매 동기를 유발시킨다.	상업 공간이지만 상품 판매 이상의 목적으로, 공간의 구성요소와 가구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이미지에 공간 수용자의 경험에 더해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분석결과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물망의 유기적 형태의 특성은 벽과 같은 공간의 구성요소에서 가구로 형태적 전환과 필요에 따른 가구의 위치 선정을 자유롭게 한다. 또한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는 기호의 '도상'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공간 요소와 가구의 조형적 유사성은 그 시각적 특성 때문에 공간 수용자를 공간에 결속시키는데 용이하다. 그 과정에서 공간 수용자는 경험을 통해 공간을 인식하여 두 기호의 상호작용과 공간의 의미형성 과정에 참여한다.		

5. 결론

현대 사회의 다문화적인 양상은 실내 디자인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다양한 표현으로 자유롭게 구성된 공간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영향의 일환으로 공간의 구성요소와 가구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게 되어 실내 공간에서 가구는 공간을 채우는 별개의 개체가 아닌 실내 공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의 구성 요소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는 의도적인 공간 구성으로 인간에게 어떠한 심리상태나 행동을 유도하려 할 때, 공간의 구성요소와 가구의 물리적·조형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 디자인에서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이 인간에게 인지적으로 다가오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설정하여 퍼스가 <표 1>에서 제시한 9가지 기호 유형에 적용하여 공간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퍼스의 각 유형에서 일어나는 기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을 표상체의 영역에서 분석할 경우, 표상체의 일차적 성질에 의한 두 기호의 개별적 표현 특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주거 공간의 공간 구성요소와 가구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안정적인 조형적 표현이 나타났다. 사무공간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작업의 영역에서는 수직·수평적 표현이 두드러졌고 휴식의 영역에서는 자유롭고 다양한 구성과 표현이 특징이며, 상업 공간의 두 기호는 다른 두 곳에 비해 화려하고 독특한 표현으로 흥미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둘째,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을 대상체의 영역에서 분석할 경우, 대상체의 이차적 성질에 의해 두 기호가 관계를 맺음으로 형성하는 기호작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주거 공간의 가구는 공간 구성요소에 비해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기호의 성격이 뚜렷하다. 사무 공간의 두 기호는 인과적 관계에 의한 계획적인 공간 구성으로 두 기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공간 수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지표'기호 유형이 강하게 일어나고, 상업 공간에서는 브랜드의 특정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즉각적인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도상'기호 유형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셋째,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을 해석체의 영역에서 분석할 경우, 해석체의 삼차적 성질에 의해 두 기호의 작용으로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주거 공간에서 조화와 안정이라는 공간 이미지가 인간에게 전도되어 공간을 인식한다. 사무 공간에서 공간은 인간 행동의 선택에 직접 개입하여 인간은 행동 결과를 통해 공간을 인식하며, 상업 공간에서는 공간이

미지에 인간의 경험을 더하여 공간의 의미형성과정을 완성시킴으로써 공간을 인식한다.

페스의 기호학은 관념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사고가 그러하듯이, 한 공간에서 공간의 요소와 가구의 관계는 9가지 유형으로 작용하되,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발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개별적인 두 기호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상체의 영역부터 두 기호의 관계에 관여하는 대상체의 영역, 그리고 공간 수용자, 인간의 해석 작용으로 개입하는 해석체의 영역 까지 점차적으로 그 의미의 범위와 깊이를 더하는 기호의 작용과정을 볼 수 있다.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연상 작용과 같은 의미로, 페스의 기호는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유형화된 기호의 범주에 따른 기호의 해석 작용을 거치기 때문에 끊임없는 발전이 가능한,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내 공간과 가구의 상호관계성을 기호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공간의 표현을 통해 지각될 수 있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다방면으로 이해하려는 것이고, 역으로 공간을 인식하는 인간의 사고에서부터 시작하는 연역법적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호학적 연구를 통해 실내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표현된 조형적 요소들과 보이지 않는 공간 내면의 의미를 이끌어내어 그 구조를 구체화 시키고, 인간의 해석 작용을 통해 공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를 마치며 앞으로 실내 디자인에서 기호학적 연구가 디자인 분석과 디자인 방법론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공간의 다의적 의미와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여 그것을 활성화 시킬 새로운 디자인 이론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호학연대, 기호학으로 세상읽기, 소명출판, 2002
2. 김성도, 기호·리듬·우주, 인간사랑, 2007
3. 김치수·김성도·박인철·박일우,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 교출판부, 1998
4. 오인우, 室內디자인 方法論, 기문당, 2001
5. 찰스 샌더스 페스, 페스의 기호 사상, 김성도 역, 민음사, 2006
6. 마르틴 줄리, 이미지와 기호, 이선형 역, 동문선, 2004
7. 폴 코블리, 기호학-하룻밤의 지식여행, 조성택·변진경 역, 김영사, 2002
8. 로즈메리 키머·W·오타 키머, 인테리어 디자인:기초·실무이론, 김혜원·윤혜경·천진희 역, 교문사, 2007
9. 신선주, 플래그쉽 스토어의 기호학적 해석의 관한 연구, 건국대학사논문, 2008
10. 진경미, 실내공간과 가구의 상호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사논문, 2008
11. 송진원, 사회적 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사논문, 2010
12. 박경애, 페어스 기호학에 의한 한국전통공간디자인의 삼원론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5
13. 함보아, Surrealism 표현특성과 기호학적 적용방법을 통한 공간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

[논문접수 : 2011. 03. 31]
[1차 심사 : 2011. 04. 20]
[2차 심사 : 2011. 05. 02]
[3차 심사 : 2011. 05. 17]
[게재확정 : 2011. 06. 10]